

배국남의 대중문화 X파일

연기에 노래까지... '멀티테이너' 대중문화계 장악하다

가수 이승기는 9월 SBS 드라마 '배가본드'의 주연으로 나서는 동시에 새롭게 선보인 예능 프로그램 SBS '리틀 프레스트'와 SBS 주말 예능 '집사부 일체'에 출연하고 있다.

가수 수지는 '배가본드'의 여자 주연으로 시청자와 만나고 영화 '백두산' 촬영을 마치고 개봉을 앞두고 있다. 아이돌 그룹 걸스데이 출신 헤라리는 tvN 예능 프로그램 '도레미 마켓'의 진행자로 활약하면서 9월 25일 첫 방송한 tvN 드라마 '청일전자 미쓰리' 타이틀 롤을 맡았고 10월 개봉한 영화 '판소리 복서'로 관객과 만났다.

MBC '웰컴 2 라이프'의 비, '신입 사관 구해령'의 차은우, KBS '너의 노래를 들려줘'의 김세정, '저스티스'의 나나, SBS 'VIP'의 장나라, tvN '호텔 델루나'의 아이유, JTBC '열여덟의 순간'의 오성우, OCN '타인은 지옥이다'의 임시완... 9월 시청자와 만난 드라마의 주연들이다. 이들은 가수 겸 배우다. 7월 개봉돼 900만 명을 돌파하며 흥행 돌풍을 일으킨 영화 '엑시트'의 여자 주연은 소녀시대의 윤아다.

영화, 드라마, 대중음악과 공연, 예능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멀티테이너' (Multi+Entertainer) 연예인이 대중문화계를 장악하고 있다. 스타 멀티테이너 독식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멀티테이너의 역사는 대중문화 초창기부터 시작됐다. 일제 강점기 영화 '장한몽' '만동이 틀 때'로 큰 인기를 얻은 배우 강홍식(최민수의 외할아버지)은 '삼수갑산', '유쾌한 시골 영감' 등 적지 않은 노래를 음반으로 발표해 가수로서도 대중의 큰 사랑을 받았다.

1930년 한국 최초의 재즈곡 '종로 행진곡'을 부른 복혜숙은 '농중조', '낙화유수' 등 영화에 출연해 배우로 명성을 얻었던 스타로 해방 후에는 성우, 탤런트로 활동 영역을 넓히며 멀티테이너의 전형을 보여줬다. 일제 강점기의 대중문화 초창기에는 전옥, 강석연, 이경설, 이애리수 등 배우 겸 가수로 활동하는 연예인이 적지 않았다.

윤부길 등 악극단의 무대에 선 코미디언들은 연기, 노래, 진행까지 1인 3역을 했다. 봉건적 분위기가 지배한 대중문화 초창기에는 연예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심해 연예계에 진출하려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여자는 연예 활동 자체가 금기로 여겨졌다. 남자 배우들이 여장하고 여자 배역을 연기하는 여형(女形) 배우가 따로 있을 정도였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연예인 층원이 제대로 되지 않아 한 연예인이 영화배우 겸 가수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았다.

해방 이후 연예인을 지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레코드사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가수를 발굴해 양성하고, 영화사와 방송사가 연기자를 발탁해 작품에 기용하면서 한 연예인이 가수, 배우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멀티테이너는 많이 감소했다. 물론 한해 100~200편의 많은 영화가 제작되던 1960년대 인기 가수의 히트곡을 영화화하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가수들이 영화에 출연하기도 했다.

스타 가수 남진은 1967년 박상호 감독의 영화 '가슴 아프게' 주연을 비롯해 70여편의 영화 주연으로 나서 흥행 돌풍을 일으키며 배우로서도 성공하기도 했지만, 이 시기 가수와 배우로 동시에 활동하던 연예인은 많지 않았다. 1970~1980년대 전영록이 가수와 배우로 두드러진 활동을 하며 멀티테이너 스타로 각광을 받았지만, 멀티테이너로 활약하는 연예인은 보기 힘들었다.

1990년대 들어 상황은 급변했다. 임창정, 엄정화

남진·전영록 가수활동하며 영화 출연

90년대 중반 멀티테이너 본격 등장

아이돌 세대 등장으로 급증

2세대 아이돌 활동으로 양상 변모

데뷔와 동시 가수·예능 병행 일반화

SM엔터테인먼트가 1996년 H.O.T와 1997년 S.E.S를 데뷔시키면서 열린 아이돌 그룹 시대를 맞으면서 멀티테이너들이 쏟아져 나온 것이다. 1990년대 중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 데뷔한 H.O.T, S.E.S, 젝스키스, 핑클, 베이비복스, 신화, 주얼리, god 등 1세대 아이돌 그룹은 일정 기간 그룹 활동을 한 뒤 일부 멤버가 드라마와 영화, 그리고 예능 프로그램에 진출했다.

하지만 1세대 아이돌들의 배우와 예능인 겸업은

하면서 멀티테이너의 양상도 변화했다.

1세대 아이들은 일정 기간 가수로 활동하거나 그룹이 해체된 뒤 연기 겸업에 나섰으나 2세대 아이들 그룹부터는 데뷔와 동시에 가수 활동과 연기, 예능 활동을 병행하는 유형이 일반화했다. 수많은 아이돌 가수들이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하며 가수 겸 배우로 활동했다.

연예 기획사가 아이돌 그룹을 육성하면서 데뷔 전 연습생 시절에 노래와 안무뿐만 아니라 연기, 예능까지 지도해 1세대 아이돌 그룹 멤버들에게서 드러난 연기력 부족은 심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여전히 아이돌 가수 출신의 연기력 문제는 논란을 일으켰다.

2012년 데뷔한 엑소를 시작으로 걸스데이, AOA 등 2010년대 데뷔한 3세대 아이돌그룹이 등장하면서 디오, 정은지, 설현, 차은우, 헤라 등 가수와 연기를 병행하는 아이돌들이 대세를 이뤘다. 가수로 데뷔했지만, 오히려 배우 활동을 더 많이 하는 멀티테이너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 심지어 가수 활동은 하지 않고 아예 연기자로 전업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이 같은 멀티테이너의 범람은 연예 기획사가 한 연예인 자원을 다양한 분야에 활동시키며 이윤을 극대화하는 원 소스-멀티 유스(One Source-Multi Use) 전략이 일상화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가수로서 활동할 때보다 가수와 배우를 겸업할 때 보다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기에 연예 기획사는 앞다퉈 소속 아이돌 그룹 멤버들의 멀티테이너로서의 행보를 추동시키고 있다.

여기에 SM엔터테인먼트, FNC엔터테인먼트 등 연예 기획사가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 등 콘텐츠 제작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도 멀티테이너 양산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제작사가 스타 가수를 영화나 드라마에 캐스팅했을 때 투자 유치나 국내의 작품 판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도 멀티테이너 증가를 촉발하고 있다. 가수는 유행 트렌드가 지나거나 그룹이 해체되면 대중의 외면을 받아 연예인 생명이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연기자나 예능인은 생명이 길어 가수들이 앞 다퉈 활동 영역 확대를 꾀하는 것도 멀티테이너 증가를 부추긴다.

최근 들어 멀티테이너로 활동하는 연예인은 급증하고 있지만, 성공적인 멀티테이너로서 자리 잡은 연예인은 극소수다. 가수와 배우, 가수와 예능인, 연기자와 예능인 등 멀티테이너로서 대중의 진정한 인정을 받는 연예인은 손에 꼽힌다.

멀티테이너의 급증은 대중문화계에 어두운 그림자도 드리우고 있다.

연예 기획사의 몰락 공세와 인기만으로 적지 않은 가수가 영화·드라마의 주연과 예능 프로그램 MC를 독차지하면서 연기력과 예능감 부재로 한국 대중문화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무엇보다 스타 독식 현상을 심화시키는 멀티테이너의 범람은 다양한 연예계 인적 자원과 실력 있는 연예인의 활동 무대를 앗아 대중문화의 의미 있는 진화를 가로막고 있다.

<대중문화 평론가>



전영록 출연 '독불장군'



영화 '가수왕' 출연 남진



예능 '효리네 민박'의 이효리



'건축학 개론' 수지



영화 '댄싱 퀸'의 엄정화



드라마 '구가의 사' 이승기

들이 1990년대 초중반 배우와 가수로 활동하며 두 분야에서 모두 인기를 얻은 데 이어 1990년대 중반부터 멀티테이너가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SM엔터테인먼트, DSP미디어를 비롯한 연예 기획사가 연예인 지망생(연습생)을 발탁해 가수나 연기자로 육성하는 스타 시스템의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멀티테이너가 늘기 시작했고 2000년대 들어 방송사가 탤런트 공채를 중단하면서 멀티테이너가 급증했다.

2010년대 이후 멀티테이너 양산

연예기획사 이윤 극대화 원인

스타 독식 현상 갈수록 심해

연기력·예능감 부재로 경쟁력 약화

멀티테이너 연예인 많지만 성공 극소수

적지 않은 문제를 노출했다. 아이돌로서의 인기를 드라마나 영화로 연결하기 위해 제작사나 연예 기획사가 연기력 검증 없이 무리하게 주연으로 내세우면서 연기력 부재로 작품 완성도가 크게 훼손돼 시청자와 관객의 외면과 비판을 초래했다.

2004년 동방신기를 시작으로 슈퍼주니어, 박빙, 소녀시대, 원더걸스, 2PM, 샤이니, 에프엑스, 카라, 애프터스쿨, 포미닛, 미쓰에이 등 2000년대 중후반 데뷔한 2세대 아이돌 그룹이 본격적으로 활동

그린궁 **宮**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